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40 갈데까지 가보지(재) 50 헬킵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굿모닝 A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속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풀적구 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튼튼 생활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우리말 겨우기(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재)	00 주말특별기획 <황금우지개(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갈데까지 가보지(재)	00 KBS 뉴스12	55 영화가 좋다(재)	00 MBC 정오뉴스 20 MBC 나눔 특집다큐 대학생 희망드림캠프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40 뉴스 추적자	00 리얼체결 세상을 품다 40 제95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		15 MBC 스포츠 제30회 MBC대 대학농구 (준결승)	30 한국의 맛(재)
2 50 직안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재)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 25 두리동심 공계공화(재) 55 TV저널 공디공	00 MBC 경제 뉴스 10 보글 국영정대 40 펠로 키즈 공룡이 살아있다!	10 SBS 아수인 사이트
4 0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3-1특 특선안코르 KBS 파노라미 일본군 위안부 55 튼튼 생활체조	25 코파 반정의 동화 수사대 55 비타인(재)	30 신동방송 호기심 탐험대 스페셜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클로빌 24 30 생생 정보통	20 도전! 발명왕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7 20 갈데까지 가보지(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질기운 할머니>
8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의미가 있는 풍경 마미도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파노라마 50 동계올림픽 특집다큐 이제는 평창이다	00 수목 드라마 <감격 시대>	00 수목미니시리즈 <양귀비 동심녀(첫회)>	00 드라마스페셜 <벌에서 온 구대>
11 00 헬킵 투 시월드	30 KBS 뉴스타임	10 해피 투게더		15 자기아·백년손님
12 30 모닥드라마(싸인)(재)	30 인문강단 락(樂)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디큐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법	30 MBC 뉴스 24	35 나이트라인
①:30 소치에서 평창의 희망을 본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생활백과)	14:00 마텔도사	18:00 생활속 특! 특! 보나하니
05:40 장수의 비결(재)	10:10 리얼토크 부모	14:30 코코몽2	19:00 리얼체험 땅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4:45 곤	19:30 EBS 뉴스
07:00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필리핀)(재)	15:00 지구를 지켜라	19:50 달라졌어(재)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2:00 EBS 정오 뉴스	15:15 마사와 곰	20:40 청소년 나눔 교육 <나눔의 발전>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구	16:00 땀땀 땀땀(재)	20:50 세계테마기행 <일본>
07:45 로보카 폴리(재)	<행복한 교육세상>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30 한국기행 <남도갯길>
08:00 땀땀 땀땀	13:05 역사채널e	16:30 책갈피 오정 도보	21:50 EBS 특별기획 <한국을 수출하다 2부>
08:20 책과 명재	13:10 사이인	16:45 How-만들어 불가(재)	
08:35 방구대장 뽕뽕이	13:20 풀잡이 페퍼는 즐거워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22:45 다문화 고부일전
08:50 출 추는 곰, 곰아	13:30 고인이 피피	17:15 꼬마버스 타요	23:35 장수의 비밀
09:05 책갈피 오정 도보(재)	13:45 반짝반짝 발명 클럽	17:45 두디다콩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09:20 미술탐험대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2:10 5분 과학-지구과학 I
00:50 "	<국어 II>	12:15 수능 특강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5 " <수학 I B형>
02:30 "	<수학 II>	14:00 " <국어 B형>
03:20 뉴타임스런	<한국지리 I>	14:50 " <영어 A형>
04:10 "	<과학>	15:40 " <영어 B형>
05:00 "	<한국지리 II>	16:30 " <한국지리 I>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17:20 " <사회문화>
06:40 압축타임스런	<지구과학 I>	18:10 " <경제>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 <윤리와 사상>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	19:50 5분 과학-지구과학 I (재)
09:10 "	<수학 II>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10:00 뉴타임스런	<과학>	21:00 " <영어 A형>(재)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22:00 "	22:00 " <영어 B형>(재)
11:40 박봉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23:00 수능특강	<한국지리 I>(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민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민중왕	<과학 I>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15:50 "	<과학 II>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20 "	<과학 III>
08:30 교육학 논술	16:50 "	<과학 IV>
09:00 줄거움 수학 EBS MATH	17:20 초등 개념잡기	<과학>(재)
09:10 TV 중학	<국어 I>	17:50 스텔렌드(재)
09:50 "	<영어 I>	18:00 TV 중학
10:30 "	<도덕 I>	18:40 "
11:10 "	<국어 II>	19:20 등업산공
11:50 "	<영어 II>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12:30 등업산공	<사회 I>	20:40 "
13:10 "	<역사 I>	21:20 "
13:50 "	<역사 II>	22:00 중학개포스 영어독해
14:30 "	<사회 II>	22:40 EBS 역사특강
15:10 스텔렌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1월 28일 己巳)

子	36년생 스스로 정리 될 것이니 내버려 두면 된다. 48년생 주저 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60년생 확실하게 구분해 두어야 한다. 72년생 상대적이지 만큼 가변성을 염두에 두자. 84년생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행운의 숫자 : 67, 76
丑	37년생 구태의연함에 벗어날 수 있다. 49년생 넉넉하게 준비 해 두는 것이 좋다. 61년생 기본적 가치는 불변하는 것을 알아. 73년생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한다. 85년생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60, 91
寅	38년생 기회가 밝게 빛나리라. 50년생 무의미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62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애매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74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10
卯	39년생 누락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51년생 서로 진행 방향이 상반되니 인연이 박하다. 63년생 힘들면 쉬었다 하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75년생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행운의 숫자 : 28, 45
辰	40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52년생 평판을 의식하다보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64년생 투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이다. 76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12, 83
巳	41년생 단순하게 여긴다면 복병을 만나게 된다. 53년생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65년생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77년생 미흡한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47

午	42년생 예정된 절차대로만 이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54년생 어떠한 대국에 임하려다도 경위에 벗어날 수 없다. 66년생 귀한 것이 생겨서 행복해지리라. 78년생 즐거운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3, 22
未	43년생 변동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55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67년생 결정적인 때에 여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두렵다. 79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73
申	44년생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56년생 구원으로 인한 업보가 갚으리라. 68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완전히 탈바꿈 될 수 있겠다. 80년생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행운의 숫자 : 52, 31
酉	45년생 적극성을 띤 선택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57년생 중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다 털어 놓아야 할 입장에 처한다. 81년생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난감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05, 57
戌	46년생 다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물어 보고 가자. 58년생 웃은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오래 믿어 가는 법이다. 70년생 행들거는 하지만 거들어 주는 이도 있다. 82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낫다. 행운의 숫자 : 16, 40
亥	47년생 모르고 잊지는 않은 지 돌아 볼 일이다. 59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71년생 아예 오르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다. 83년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다 놓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4, 5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첫 1천만 관객 눈앞

이번 주말 돌파 예약

국내 흥행 美 제외 세계 1위

음반·출판 등 산업계 돌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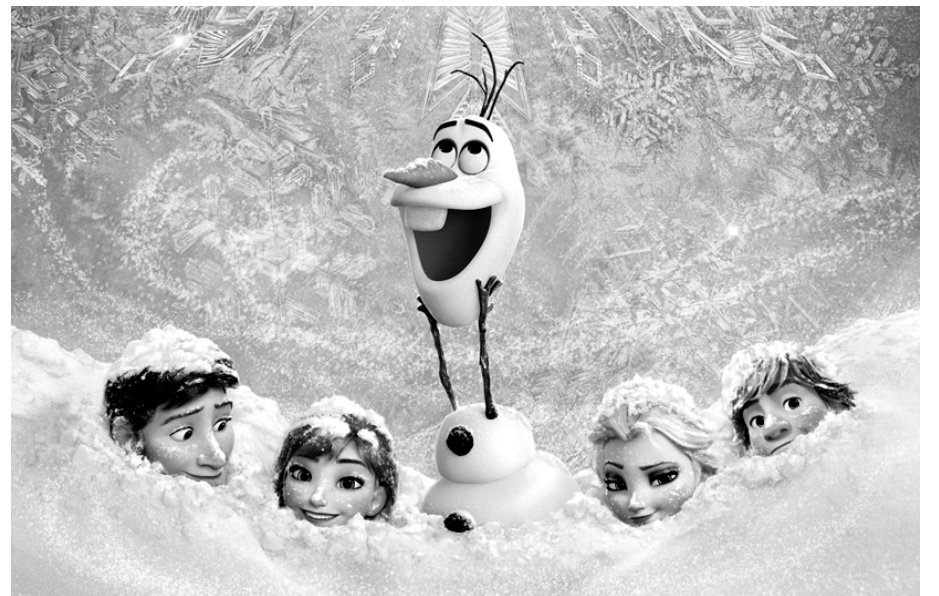
이번 주말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예정인 ‘겨울왕국’ <사진>은 탄탄한 스토리에 아름다운 음악이 더해지며 애니메이션 돌풍을 일으켰다. 영화는 ‘쿵푸팬더 2’가 보유한 국내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506만 명)은 물론 ‘아바타’ (2009) 이후 5년 만에 외화로는 역대 2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

◇국내 흥행성적, 미국 제외한 1위=미국과 박스오피스 집계사이트인 박스오피스모조닷컴에 따르면 ‘겨울왕국’의 흥행성적은 9억80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미국이 3억8410만 달러로 압도적인 1위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박스오피스에선 우리나라가 선두다. ‘겨울왕국’은 한국에서만 6700만 달러의 흥행수입을 올렸다. 영국(6143만 달러)이나 독일(4734만 달러), 프랑스(4694만 달러)보다 앞선 전 세계 2위다.

이들 국가보다 평균 입장료 가격이 낮고, 인구가 적은 점에 비추면 ‘겨울왕국’의 국내 흥행 돌풍 규모를 감지할 수 있다. 영국의 미디어리서치 회사 스코리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티켓 가격은 8.19 달러, 프랑스는 8.40 달러, 독일은 9.99 달러, 영국은 11.44 달러지만 한국 극장의 티켓 가격은 6.79 달러에 불과하다.

‘겨울왕국’의 국내 흥행 돌풍과 관련, 정지욱 평론가는 “가족 단위 관객들이 겨울철에 가장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트가 영화”라며 “특별한 경쾌함이 없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브로웨이 뮤지컬 같은 영화 한 편을 즐길 수 있었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도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토리텔링과 음악의 조화 디즈니의 컴



백=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최고의 명가였지만 다 옛말이었다. 1980~90년대 ‘인어공주’ (1989) ‘라이온킹’ (1994), ‘포카혼타스’ (1995) 등으로 주가를 올렸으나 2000년대 들어 드림웍스에 밀린 후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디즈니가 픽사를 합병한 이후 이야기가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라푼젤’ (2010)은 픽사의 기술력과 스토리텔링, 디즈니 스타일의 캐릭터가 만나면서 101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고, 2012년 선보인 ‘주먹왕 람보’도 이야기가 참신하고 힘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함께 91만 명을 동원했다.

‘겨울왕국’은 이러한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최적화된 결과물이다. 흥행성적도 합병 후 디즈니 최고의 스토리를 기록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9억80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1위는 10억6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픽사의 ‘토이스토리 3’다.

◇음반·출판에서 산업계로 퍼진 파급효과=출판계에서 ‘겨울왕국’의 선전은 놀라

울 정도다. ‘겨울왕국 무비 스토리북’이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디즈니 겨울왕국 색칠 스티커북’, ‘스 크린 영어회화-겨울왕국’ 등 겨울왕국 관련서 5~6권이 20위 안에 진입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음원 시장에서도 ‘겨울왕국’은 돌풍을 일으켰다. 앨범 타이틀곡 ‘렛 잇 고’(Let it go)는 지난달 27일 음원 사이트 멜론의 실시간 차트를 포함해 멜론, 엠넷을 비롯한 각종 차트에서 1~2위를 차지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가온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어 버전으로 수록된 겨울왕국 OST가 발매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겨울왕국’의 돌풍은 산업계 전반으로까지 확산했다. 육선에선 지난달 26일부터 겨울왕국 그림책·스티커북·OST가 애니메이션북 OST 카테고리 매출을 견인하면서 이 분야 매출이 개봉 전보다 50배 이상 증가했다. 겨울왕국 색칠 스티커북 등은 아동도서 베스트 상품에 올랐고, 캐릭터 상품을 구하려는 해외 주문 수요도 부족 늘었다. /연합뉴스

‘우리동네 예체능’ 이번엔 태권도 도전

가수 김연우 새 MC 합류

연예인과 동호인들이 생활 체육으로 겨루는 KBS 예능 ‘우리동네 예체능’이 이번에는 국기인 태권도에 도전한다.

메인 MC 강호동(사진) 외에 세 번째 종목인 배드민턴부터 함께했던 존박, 네 번째 종목 농구에 참여했던 줄리엔 강과 서지진, 그리고 새로 합류하는 가수 김연우 MC 진용을 꾸렸다.

26일 오전 프로그램 녹화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이예지 PD는 “구기 종목 위주로 하다 보니 규칙이 어렵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규칙을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을 쉽게 풀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태권도 편은 기존의 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오디션을 통과한 일반 시청자들의

참여로 남녀노소가 즐기는 생활 체육으로 다가간다는 취지를 지닌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체능’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마침내 MC가 된 김연우는 “예전부터 날렵했고 무슨 운동을 하든 신동 소리를 들었다”며 “처음부터 워낙 특출나서 발전하는 게 눈에 안 될 것 같아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동신경은 살아있지만 40대라 몸이 예전 같지는 않다. 나의 한계를 극복해 내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PD는 “섭외할 때 운동 신경은 기본이고 우리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분이 우선이지만 김연우 씨를 섭외한 건 이번 입담도 중요했다”며 “운동 신경이 좋은 분은 많지만 재미를 무시할 수 없고 강호동 씨 혼자 하기에 버차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태권도 편에는 이규형 국기원 원장과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정국현 사범이 도움을 주고, 2PM 찬성파 빅스타 필름, 인퍼니트 호야가 연예인 팀으로 함께 한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네팔 피플레 마을의 새마을 운동



한국을 수출하다(EBS·밤 9시50분)=매년 150여 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새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전 세계가 이토록 새마을운동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난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600달러 수준의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약 6시간 거리에 있는 피플레 마을에 새마을운동이 전파된 것은 2007년부터다. 이 마을 새마을 지도자 ‘파람’ 씨는 소수 민족 출신으로 누구보다 잘 살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전도사로 변신한 ‘파람’과 피플레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자.

정월 대보름 필수 음식 미더덕찜



한국의 밥상(KBS1·오후 7시30분)=자연이 만든 축복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지형이 고르지 않는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섬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모여 있는 곳, 바로 마산 앞바다이다. 연중 난류가 흐르고 낙동강 강물이 유입되어 플랑크톤이 풍부한 이곳은 해조류, 어패류의 자연 산란지대 미더덕의 주산지다.

마산 밥상에서 미더덕은 단순히 국물 맛을 내는 부재료가 아닌 없어서는 안 될 주연이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해적생물로 천덕꾸러기로 구박받던 미더덕이 이제는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다. 마산 바닷가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에는 미더덕찜을 먹어야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미더덕 찜에는 목은해를 잘 보내고 풍요로운 봄을 맞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들어있다.

산골분교 일일교사 나선 마마들



엄마가 있는 풍경 마미도(KBS2·오후 8시55분)=방학이 심심한 산골분교 아이들을 위해 일일교사로 변신한 마마들. 제 5교시, ‘생기발랄한’ 효춘 선생님의 무용시간이다. 효춘은 꼭두각시 무용을 선보여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효춘의 명품 표정연기와 관객들을 속이는 짝퉁 반전 안무까지 대공개된다.

울림줄장 꼭두각시 춤으로 오프닝의 대미를 장식한 효춘과 아이들. 그리고 그사이에서 유난히 곤혹스러워 하는 병욱이네 가족들과 아이들이 난생 처음 써준 편지에 감동받은 경수네까지 온 마을이 떠들썩해진다. 마마들과 아이들이 빙어 축제장을 찾았다. 오늘은 신월 분교 아이들이 소원을 성취하는 날이다. 그리고 청산도 편에 이어 펼쳐진 용림과 태근 일당의 낚시 사기극이 펼쳐진다.